

## 9차시. 집단지능이 눈을 뜨다. – 공유경제의 등장

### 01. 집단지능이 눈을 뜨다.

#### ▶ 이베이(eBay)

-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피에르 오미디아르(Pierre Omidyare)가 창업한 회사
- 인터넷의 연결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**잉여자원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**을 만든 것으로 집단지능을 활용한 공유경제 사업모델의 원조

#### ▶ 프라이스라인(Priceline)

- 1997년 창업 당시 역경매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회사로 역경매는 판매자가 물건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올리는 것이라고 보았으며, 역경매 역시 잉여자원을 공유하는 모델임

#### ▶ 위키피디아(Wikipedia)

- **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**으로 일반 소비자들도 자신이 알고 있는 잉여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

### 02. 집단지능이 실체를 드러낸다.

#### ▶ 에어비앤비의 사업모델:

기존 숙박업계가 구축해놓은 가치사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, **다른 영역에서 가치의 고리를 형성**해가는 성공을 거둠

- ▶ 공유경제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'**옛날에 충족되지 않았던 욕구의 존재**'를 발견한 데에 있음

- ▶ 1990년대 인터넷이 집단지능을 잉태 → 2000년대 들어 웹2.0 환경에서 집단지능이 무르익음  
→ 스마트폰의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집단지능이 실체를 드러냄

### 03. 공유경제 등장의 역사적 배경

#### ▶ 산업시대

- 생산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냈는데, 산업혁명 이전은 절대적으로 물자가 부족했던 시기였음
-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에서 대량생산되어 쏟아져 나온 상품들은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상품들은 잘 팔리기 시작하였음

#### ▶ 20세기는 발명의 시대

#### ▶ 과잉사회

- 과잉투자 되어 기업들의 설비가동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, **모든 업종의 라이프사이클은 포화기를 넘어 쇠퇴기에 접어들**

#### ▶ 4차산업혁명시대

- **집단지능과 인공지능이 융합**되는 것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임
- 사물인터넷, 클라우드, 빅 데이터, 3D 프린팅, 로봇, 블록체인 등 **4차 산업혁명 기술의 원리가 집단지능과 인공지능**

### 04. 문명의 이동

- ▶ **협업경제**: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집단지능을 만들어냄
- ▶ **융합경제**: 연결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냄
- ▶ 200여 년 전 산업화가 시작되고 자본주의가 득세하면서 인간은 소외되었음  
자본과 사물이 중심이 되는 가치사슬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고, 인류는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구매해서 소비하는 구경꾼에 불과하였으나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음
- ▶ 문명이 이동하면서 비즈니스 패러다임, 즉 가치창출 양식도 바뀌고 있음  
공유경제는 기존의 가치창출 방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산업시대에는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부가되었지만, 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상품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만들어냄